

임성재, 3개 대회 연속 '톱10'



▲ 임성재

지난 시즌 '아시아 국적 최초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임성재(22·CJ 대한통운)가 3개 대회 연속 '톱10'에 이름을 올리며 페덱스컵 랭킹 1위도 지켰다

15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막한 PGA 투어 찰스 슈와브 챌린지(총상금 750만 달러)는 골프팬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투어가 중단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 이 대회에 톱스타들이 총출동했기 때문이다. 세계랭킹 1~3위 로리 매길로이(31·북아일랜드), 온 램(26·스페인), 브룩스 썬카(30·미국)가 같은 조에서 동반 플레이를 펼쳤고 4위 저스틴 토머스(27·미국), 5위 더스틴 존슨(36·미국)까지 가세했다.

임성재는 이런 쟁쟁한 스타들과 경합해 톱10에 진입하는 빼어난 성적을 이어갔다. 임성재는 15일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 컨트리클럽(파 70)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3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10위(11언더파 269타)에 올랐다. 혼다 클래식 우승, 아널드파머 인비테이셔널 3위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톱10이자 시즌 여섯 번째 톱10 기록이다. 이에 따라 임성재는 매길로이, 토머스와 함께 이번 시즌 최다 톱10 공동 1위에 달했다. 임성재는 또 페덱스컵 랭킹 1위도 지켰다.

무관중으로 열린 이 대회 우승은 연장전 끝에 대니얼 버거(27·미국)가 차지했다. 매길로이는 이날 4타를 잃는 부진 속에 공동 32위(6언더파 274타)에 머물렀다.

한편 임성재는 2014년부터 2년간 국가대표를 지냈고 2015년 프로로 전향, 그 해 10월 한국프로골프(KPGA) 챌린지 투어 12회 대회에서 우승하며 2016년 1부 투어인 코리아투어로 진출했다. 2016년부터 2년간 한국과 일본 투어 생활을 병행한 그는 2018년부터 미국으로 진출, 2018-2019 시즌 PGA 투어 신인상을 수상했다.

세계태권도연맹, 거버넌스 평가서 A2그룹 승격

세계태권도연맹(WT)이 하계올림픽종목국제연맹연합(ASOIF)의 '거버넌스' 평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A2그룹에 포함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SOIF는 전날 스위스 로잔에서 2020 도쿄올림픽 종목 33개 중 복싱과 가라테를 제외한 31개 종목의 2019-2020시즌 거버넌스 평가 결과를 A1, A2, B, C의 네 그룹으로 나눠 발표했다.

2017-2018시즌 B그룹에 속했던 WT는 이번 평가에서는 한 단계 높은 A2 그룹으로 승격했다. WT는 ASOIF가 평가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2016-2017시즌에는 C그룹에서 시작해 세 번째 평가인 이번에 A2그룹까지 끌어올렸다.

A1그룹에는 세계배드민턴연맹·국제승마연맹·국제축구연맹·국제테니스연맹·국제사이클연맹, 국제력비연맹이 이름을 올렸다.

A2그룹에는 WT와 함께 국제농구연맹, 국제펜싱연맹, 국제탁구연맹, 국제레슬링연맹·국제육상경기연맹·국제요트연맹·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이 속했다.

국제체조연맹·국제하키연맹·국제배구연맹 등 11개 국제연맹은 B그룹, 국제유도연맹·국제수영연맹·국제역도연맹 등 6개 국제연맹은 C그룹으로 분류됐다.

WT는 평가 지표인 투명성, 신뢰성, 민주성, 스포츠 개발



▲ 세계태권도연맹이 ASOIF의 '거버넌스' 평가에서 A2그룹에 포함됐다. 사진=세계태권도연맹

및 화합과 협력, 컨트롤 메커니즘 5개 분야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투명성 부분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WT는 외부 전문가들을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 임명하고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하며 재정 투명성 및 사업 지속성을 높여 굿 거버넌스 모범 사례로 인정 받아 왔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남자 15명, 여자 15명의 심판을 배정해 올림픽 종목 사상 처음으로 성 평등을 실현하기도 했으며 국제경기연맹 중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 난민과 불우 청소년을 돕기 위한 태권도박애재단을 설립해 인류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병현, 애리조나 역대 최고의 구원투수 선정

김병현(41)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역대 최고 구원투수로 선정됐다.

1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메이저리그닷컴은 전날 구단별 최고의 구원투수를 뽑았다. 애리조나의 최고 구원투수 주인공은 김병현이었다. 메이저리그닷컴은 "김병현의 베이스블레퍼런스 기준 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도(WAR)는 8.3으로 역대 애리조나 구원투수 중 가장 높다."고 소개했다.

김병현은 1999년 애리조나 유니폼을 입고 박리기에 데뷔,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다. 메이저리그닷컴은 "김병현은 2001년 뉴욕 양키스와 월드시리즈 4, 5차전에



▲ 애리조나 선수 시절의 김병현

서 리드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가 애리조나에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가 간과되곤 한다."면서 "그는 떠오르는 직구와 프리스비 슬라이더로 내셔널리그 타자들을 압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1년 78차례 구원 등판해 98이닝을 던지면서 눈부신 내구성을 입증했다."면서 "김병현은 맏 만테이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팀의 마무리 투수가 됐고, 2002년 평균자책점 2.04, 36세이브를 기록하며 역대 애리조나 구원투수 중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김병현은 메이저리그 통산 394경기에 등판해 54승 60패 86세이브 평균자책점 4.42를 수확했다. 애리조나에서는 6시즌을 뛰며 245경기 21승 23패 70세이브 평균자책점 3.43을 올렸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산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